

나주시, 쌀값 폭락 농가 지원...경영안정대책비 추가 편성



윤병태(가운데) 나주시장이 2024년산 공공 비축미 수매 현장을 찾아 품질을 살펴보고 있다. (나주시 제공)

병충해 피해로 수확량 감소·쌀 20kg 기준 전년비 10% 폭락
도·시비 49억에 15억 늘려 총 64억원 지급...1만172농가 대상

나주시가 올해 쌀값 폭락과 벼멸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나주시는 경영 위기에 놓인 벼 농가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 15억원을 경영 안정 대책비로 추가 편성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벼멸구 피

해 확산으로 수확량이 평년보다 감소한 데다 쌀값마저 20kg 기준 4만6021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폭락해 농가 경영난이 심각해졌다.
앞서 나주시는 올해 벼 경영 안정 지원비로 총 49억원(도비40%·시비60%)을 편성했으나 이번 15억원 추가 지원 결정으로 총 64억원을 연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와 논지를 두고 직접 벼를 재배한 1만172농가(7121ha)다.
기존 전남도의 벼 경영 안정 대책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쌀값 폭락에 벼멸구 피해까지 더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식량주권 수호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힘쓴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벼 경영 안정 대책비 추가 지원이 벼 재배 농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가축시장 현대화...한우 340두 동시 경매

23억원 투입 24년만에 신축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전국 첫 체장 등 측정 우형기 설치

강진가축시장이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확 바꿨다.
강진군은 강진가축시장이 24년 만에 현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1년 강진군 공동면 청자로 일원에 조성된 강진가축시장은 연평균 약 1만8000두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전남 12개 가축시장 중 상위 규모를 자랑해 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휴게 공간에 따른 신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진군은 지난해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 14억4000만 원을 확보하고, 강진안도축협에 신축 사업비를 지원했다.
새로 건립된 가축시장은 부지 1만558㎡에 연면적 1773㎡ 규모다. 한우 경매장, 휴게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반 조성비와 건축비 등 총 23억여 원이 투입됐다.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으로 한우 340두를



24년 만에 현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문을 연 강진가축시장. (강진군 제공)

동시에 경매할 수 있어 거래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거래가격의 투명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전국 최초로 체중뿐만 아니라 체고와 체장까지 측정할 수 있는 우형기 3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한편 강진안도축협은 내년 1월 별도의 개장식을

개최, 새롭게 단장한 시장을 축하한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은 한우농가의 신뢰를 높이고, 타지역 출하 농가의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장성군, 우수기관 선정

전통산사 활용 부문 '백양사' 수상

장성군이 국가유산청 주최 '2024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전통산사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
(사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청이 지역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생 국가유산과 향교·서원, 문화유산 여행, 전통산사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 5개 분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전통산사 활용 부문에서 장성 백양사 '백학 타고 백양에 노닐다' 사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백학 타고 백양에 노닐다'는 천연고찰 백양사가 지닌 우수한 문화자원에 기반한 '산사 인문학',



대중전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 '법당 지은 사람들', 백양사 하얀양의 전설을 다룬 '양이의 탐험 프로그램' 등 연중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여 호평을 얻고 있다. 지난해 첫걸음을 댄 신생 사업임에도 지역주민의 가치를 재해석한 모범사례로 꼽히

며 올해 국가유산청장상 수상 주인공이 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이 지닌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 문화행사로 꾸준히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농업 분야 자체 시책 사업 추진

농업 정책 등 19개 분야 46억원...다음달 13일 신청 마감

나주시가 새해 농·축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자체 시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2025년도 농업 분야 자체 시책 지원 사업' 신청을 내년 1월13일까지 접수받겠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사업 규모는 총 19개 분야 46억원으로 농업 정책 3건, 배원에 유통 4건, 식품산업 2건, 축산 3건, 농업진흥 3건, 기술지원 4건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 예정지가 나주 관내에 소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제 거주 중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부

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사업 적정성 심사와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 후 내년 2월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분야별 세부 사업목록과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청 누리집 열린 시정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탄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해외 대학 탐방 통해 넓은 세계 경험"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중·고생 해외역사문화탐방 결과 보고회



김성(가운데) 장흥군수가 지역 고등학교 해외비전캠프와 중학생 해외역사문화탐방 결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최근 지역 고등학교 해외비전캠프와 중학생 해외역사문화탐방 결과보고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해외비전캠프 참가자들은 미국 하버드, 프린스턴, MIT 등 현지 연구원들의 특강과 대화의 시간에 참여했다.
중학생 해외역사문화탐방 참가자는 외국 학생들과의 홈스테이 교류를 통해 직접 외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갖는 등 새로운 활동들을 통해 견문을 넓혔다.
소감 발표에서 장흥고 한 학생은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을 통해 이들의 학문적 우수성과 역사적 전통을 이해하고 미국이라는 넓은 세계를 경험해봄으로써 더 넓은 사고와 세계관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 김성 장흥군수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 장흥을 알렸듯,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캠프와 역사탐방의 경험을 통해 큰 꿈을 지닌 실력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지지부진' 강진경찰서 청사 이전 본격화

부지 교환 완료...내년 설계·2026년 완공 목표

3년간 지지부진했던 전남 강진경찰서 청사 이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진군은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교환이 관련 부처 협의 끝에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협의 체결 이후 담보상태에 있던 부지교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은 경찰청,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했다.
예초 현 청사 부지와 강진군의 신규 매입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청사 이전을 계획했으나, 4억~5억대에 달하는 교환차액, 물가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추가 확보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강진군은 최근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교환

대상에 추가해 교환 차액을 보전하고, 강진경찰서 또한 총사업비 상승분을 확보하는 등 유관기관 협의를 끝냈다.
내년부터 강진경찰서 신청사 건립 설계를 시작해 2026년 초 착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추가로 확보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오산 신규마을 조성 등 각종 공모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경찰서 신청사 완공 전까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와 기반 시설을 정비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풍성

POP댄스챌린지·탁구교실 등 5개 운영...30일까지 수강생 모집

화순군이 오는 30일까지 화순군 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1차 문화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2025년 1차 문화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메이킹(Chat GPT·AI),K-POP댄스챌린지,토요일은 토요일이 즐거워(세계사·한국사),청소년탁구교실,튼튼 속속 헬스프로그램 5개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청소년 53명이며 2025년 1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해당 요일에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30일까지 화순군에

거주지를 둔 초·중·고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화순군 청소년문화의집 누리집(http://hwasunyouth.or.kr/) 공지사항에 게재된 양식에 작성하여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minjae990407@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화순군청소년문화의집 (061-379-5176)으로 하면 된다.
이선화 화순군 가정활력과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